

# 담양 송강고 '솔가람고' 개명 불구 "반쪽" 비판

논란 끝 3년 만에 새 교명 확정  
광산이씨 등 문중 "속임수 개명"  
"아픈역사 흔적지우기 등 필요"

전남 최초 공립대한학교인 담양 송강고가 개교 3년 만에 '솔가람고'로 명칭을 바꿨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기축옥사 당시 송강 정철로부터 화(禍)를 입었다는 광산 이씨 등 6개 문중 중진회 측은 '반쪽짜리' 개명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곳곳에 남겨진 아픈 역사 흔적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송강고의 명칭이 솔가람고로 변경됐다.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기축옥 공립 대한학교인 송강고는 지난 2021년 개교 전부터 교명 논란으로 흥역을 치렀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교명 공모작 총 116개 가운데 5개 정도를 뽑아 인터넷 설문을 진행했는데, 담양군청과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송강고'를 교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끝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역사학계는 물론 6개 문중(고성 정씨, 광산 이씨, 나주 나씨, 문화 류씨, 전주 이씨, 창영 조씨 중진회 등)은 송강 정철의 이름을 학교명으로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시대 문인 송강 정철은 가사문학의 대가로 칭송받지만,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 1589년 조선 선조 때 동인의 유림들이 모반 혐의로 박해를 받은 기축옥사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송강 정철이 호남 사립 1000명을 처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에 개교 1년이 넘도록 송강고는 교문에 현판조차 내걸지 못했고, 수차례 교명 변경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2022년 송강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회 등 100여 명으로 꾸려진 교명 변경추진위는 새로운 교명을 자체 공모, 가장 선호도가 높은 '솔가람고'로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산 이씨 중진회는 솔가람고가 송강(松江) 정철의 호를 우리말로 풀어쓴 것일 뿐이라며 "송강 정철의 굴레를 못 벗어내는 속임수 개명"이라고 반발했다.

그 후 △공립학교 명칭에 인명 사용 부적절 △담양의 자연지형을 사용 제한 등 전남도교육감에게 전달했지만 진척없이 '솔가람고'로 최종 결정됐다.

이들은 반쪽짜리 변경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아픈 역사 흔적 지우기를 위

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청의 위탁을 받아 무안 남악신도시 중앙공원 내 역사적 인물 12명(김천일·나철·서재필·왕인·윤선도·이난영·이순신·장보고·정약용·정철·초의선사·허백련)의 흉상을 개당 4억여 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전남 지역민들에게 추앙받는 인물들을 선정했는데 이들 중엔 송강 정철뿐 아니라 친일논란(이난영), 친미행적(서재필)의 인물들도 포함돼 있다.

중진회 관계자들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되는 인물의 흉상은 철거돼야 한다. 또 전남도청 내 '정철실'이란 회의실 명칭 역시 인명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람·담양=신재현 기자

샤인머스켓 품질개선 지원  
화순군, 당도 증가제 등 구매비

화순군은 1일 샤인머스켓(포도)의 당도 향상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샤인머스켓 품질개선제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샤인머스켓 품질개선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로 경영체 등록이 된 필지를 경작하는 농가이며 지원 내용은 당도 증가제 및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 자재 구매비로 m<sup>2</sup>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12일까지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1-379-364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  
19~28일 열린다

'2024 화순고인돌봄꽃축제'가 19일부터 28일까지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와 도곡면 효산리 일대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 펼쳐진다.

1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화순으로 봄소풍 가지'를 주제로 총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 5개 부대행사 등이 마련된다. 9.1ha 부지에 25만 그루 초화류로 구성된 봄꽃단지는 조형물과 초화류, 유채꽃, 전시작물 등이 선보인다.

공연 분야는 실력과 뮤지션들의 야외 공연이 펼쳐질 DM버스킹, DJ박스, 화순 예술단체 공연, 가족 공연 등이 펼쳐진다. 전시 분야는 '봄의 향기 주제관'과 초대형 공인형 조형물, 고인돌 관련 조형물, 짙돌이 조형물, 몽환의 숲, 봄별 정원, 농기구 전시 등으로 꾸며진다.

체험 부스는 고인돌 스탬프 투어, 4대 포인트 인증샷, 소원존(핑매바위) 이벤트, 당나귀 꽃마차 체험, 키즈라라 체험 부스 등 총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화순 고인돌 유적지를 고인돌 축제뿐 아니라 상시 공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제2국가정원에 도전해 순천만 못지않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폐암·전립선암 검진비 지원  
영광군, 주민 780명 대상

영광군이 폐암과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통해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검진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은 군민 건강증진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폐암 180명, 전립선암 550명 등 주민 780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의료수급권자와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9만5183원, 지역가입자는 2만4266원 이하의 건강보험 소득 기준 하위 120%에 해당하는 군민이다.

국가 암검진(폐암)과 재난적 의료비, 직장인 건강검진 등 유사 사업을 통해 해당 암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061-350-48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군이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고인돌 봄꽃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화순군 제공

십리길 출석 한글공부... 장성 80대 할머니의 만학열정

삼서면 외동마을 나이순 할머니  
지난해 매주 2회씩 경로당 출석  
을 무를 수술... 가정 방문 교육

장성군이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육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출석하는 어르신들이 귀감이 되고 있다.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문자해독 능력 등을 일컫는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십리길 한글교실 개근 출석 만학도는 장성 삼서면 외동마을에 거주하는 나이순(81·여·사진) 할머니다. 나 할머니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글 공부를 위해 매주 두 번씩 동화면 송계경로당 한글교실에 출석했다.

집에서 경로당까지는 십리 넘게 떨어



져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어르신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주위의 걱정과 만류에도 나 할머니는 "평생 모르던 글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

오더니, 이젠 텔레비전 자막 글씨도 읽는다"며 "공부가 이렇게 즐거운데 십리 길 이 대수겠냐"고 답할 정도로 만학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참석이 어렵게 됐다. 지난해 겨울 미뤄뒀던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십리길 출석'은 불가능하게 됐다.

사정을 전해 들은 장성군은 나 할머니처럼 배움의 의지는 있지만 학습 장소가 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배려했다.

문해강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 배움을 전하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새로 열었다.

이러한 배려로 수업을 받지 못해 낙담했던 나 할머니는 다시 미소를 되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유봉현 기자

전남 기능경기대회, 순천서 5일까지 열려

전남지역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인 '2024 전남도 기능경기대회'가 1일 개막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5일까지 진행되며 순천공고 등 9개 경기장에서 388명이 참가, 직종별로 기술경연을 펼친다.

참가 종목은 산업용드론 제어, 메카트로닉스, 제빵 등 총 38개 직종이다. 직종별 금, 은, 동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된다. 오는 8월24일부터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남 대표로 참가한다.

지난해 전남도는 전국대회에서 랩디자

인·개발, 용접 직종에서 2명이 금메달을 획득하고, 은메달 7명, 동메달 3명, 우수·장려상 24명 등 총 36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방대회 입상선수를 위한 폐회식(시상식)이 오는 8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5년 만에 열릴 예정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우수 기능인 발굴과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담양군 중년쉼터 확대  
올해 면 단위까지 6곳 운영

담양군이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위해 운영 중인 '중년쉼터(사랑방)'를 지난해 담양읍 2곳에서 올해부터 면 단위까지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설치 이후 운영하고 있는 담양읍 군민사랑방은 일 평균 20~30명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단체모임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신규 설치된 중년쉼터는 고서면, 창평면, 대덕면, 대전면 등 4개소다.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조성됐다.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면 소재지에 설치돼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년쉼터에는 중장년층 소통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휴게용 탁자와 테이블 외에 바둑, 장기를 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북카페도 운영해 차와 독서를 즐기며 정보를 공유하고 간단한 회의도 진행하는 소회의실 등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담양=신재현 기자

나주시, 임업직불금 신청  
이달 말까지

나주시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 직불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임업 직불금은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인 통합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공고문 또는 공익농지과, 읍·면·동,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하면 된다. 나주=조대봉 기자